

왜 ‘젼잘싸’ 인가



차 상 국 의
관망과 훈수

‘젼잘싸’란 표현이 한 이틀간 인터넷 상에서 부쩍 자주 보인다. ‘젼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은 대개 짐작할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인터넷 게임 등에서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며 명경기를 보여줬거나 아깝게 석패한 경우에 이 말로 패자나 응원자 자신을 위로하곤 한다.

애초에는 위로의 말로 사용됐지만 요즘은 결과를 비꼬는 투에 더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다. 경기 전에 질 걸 알았고 경기내 용 자체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에서 ‘억 젼잘싸ㅋㅋㅋ’라는 문자를 SNS나 댓글 등으로 날리곤 한다.

이런 두 얼굴의 ‘젼잘싸’가 28일에는 여의도 정가발로, 29일에는 프랑스 파리발로 세간에 등장했다.

전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행사장에서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젼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현 이재명 대

표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다. 1년전 대선 상황을 놓고 벌이는 정당내 혼한 말싸움이 다. 후자는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전이 실패한 뒤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변명하듯이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본래 의미가 주로 석패, 분패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투표결과는 밤늦게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언론매체에서는 박빙 열세를 계속 보도했다. 투표결과가 국제박람회기구 행사장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까지 현지 중계방송은 2차 결선투표행과 대역전극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그러나 119대 29대 17. 한국은 경쟁국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에 총 165개 투표국을 놓고 무려 90표를 뒤졌다. 사실상 포기수준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 로마보다 겨우 12표 많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29개 친한파(득표국) 중에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권은 눈을 씻고봐도 드물다. 남미도 비슷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K-파워가 전세계를 헤집고 있는 요 몇년 새 볼 수 없었던 국제경쟁 대참패였다.

백년 양보해 외교력의 한계는 1위 사우

디의 오일머니살포때문이었다고 접어두더라도 정보력 부재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투표직전까지 ‘박빙 승부’를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나 민관합동유치팀의 상황파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전장에 나가면 지피지기가 중요하고 제일 먼저 판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능력이든 형국이든 불리하면 그에 맞춰 필승전략을 가져가야 비록 지더라도 ‘젼잘싸’를 꿈꿀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너무 동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1년 넘게 100여 개국 정상들을 만났고 투표 사흘전까지 파리 현지에서 득표활동을 한 윤대통령이 홀로 고군분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상황이다. 참패의 판세를 몰랐다면 분명 정부 상층부의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젼잘싸’의 뜻이 ‘젼으니 짐이나 잘 싸라’는 비아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넘쳐나는 ‘젼잘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정부의 신뢰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 같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디지털 전환의 빛과 명암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처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작품은 아니지만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를 탐구하는 역작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맞본 보안관 에드 톰 벨이 등장한다. 에드 톰벨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 이들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에드 톰벨’ 같은 인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매번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해결책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야구시리즈 발권 현장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다. LG트윈스 팬인 할아버지가 길게 늘어선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라인서 표가 매진됐다는 말을 들은 것.

발권 뿐만이 아니다. 택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은행까지 디지털 및 AI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에프아이에스(FIS)의 IT 개발업무와 관련한 인력 등을 우리은행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 안전을 결의했다. 신한은행도 그룹 통합 AI 컨택센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생성형AI를 통해 고객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분야에 특화된 자체 버티컬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79세 이하 취업자 수는 324만명으로, 22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물론 디지털전환의 이점도 명확하다. 기자는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 전환의 장단점을 피부로 느꼈다. 일본의 출입국 심사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공항에서 빠져 나오려면 평균 3시간 이상은 걸렸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매표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예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져 길게 줄을 서거나 할 일이 드물어졌지만, 일본은 달랐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이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다.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 현재의 노인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 12월 1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48년생 늦게라도 상속을 받으니 축복이 자 복덕이다. 60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2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84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37년생 닭띠 머느리와 연쟁하지 않도록. 49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61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73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85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38년생 자녀가 해운업이나 해산을 관련 일은 길신 하다. 50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 62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74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86년생 결정 장애처럼 우유부단해져 가는데.



39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51년생 평소 아박하다 보니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63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 75년생 형제간 누가 잘하니를 따지면 무엇하겠는가. 87년생 꿈 같은 아내가 여우 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40년생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심한 머느리만 있다. 52년생 목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64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76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서라. 88년생 아직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이다.



41년생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53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65년생 집 짓는데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77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89년생 내가 뛰어나도 조직에서는 상사의 뜻을 따르자.



42년생 매매를 해서 빚을 털고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54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66년생 결혼이 필수 시대였으나. 78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90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43년생 처음 만난 상대에게 위함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산다. 55년생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로 골치가 아를 것. 67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입력은 우수. 79년생 맡은 일을 매듭짓는다. 91년생 인간 세상사 원칙은 있는 법.



44년생 자녀들과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56년생 아직도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다. 68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80년생 서두르는 결혼이 이혼을 부른다. 92년생 상황에서 맞는 대처법은 있गे 마련.



45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리트 피곤을 가져온다. 57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과 연관된다. 69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81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민하지 말자. 93년생 큰돈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한 단계부터.



46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58년생 임금민 귀는 당나귀 귀이니 젊은 사장님 뒤통수 애기로 씌지 말도록. 70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82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94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47년생 미워하는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59년생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71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83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95년생 폭풍우가 몰쳐오도 연전기는 그치니 인생도 그러한 것.



김상회의四季

음양의 조화

신비한 빛의 향연인 오로라는 그간의 위치보다 남하했다는 것은 예상보다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했다는 방증이며 이것은 지구의 입장에서 그리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강한 태양폭풍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게 시켜 위성 항법과 무선 통신을 중단시키며 오존층을 파괴하기도 하여 강한 자외선이 지구에 방출되므로 건강상으로도 우려 점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가스 구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구에 도달했다 하니 마치 아름답게 핀 장미꽃이 가시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은 비유를 생각하게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여서 갖출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 친절을 베풀며 잘해 주다가 어느 순간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관이지만 지구 대기에는 방사선을 선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내 인생의 오로라 버킷리스트를 꾸꾸는 것도 전도된 환상이라라. 주역에 괘에도 라는 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단풍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나무 밑동에 쌓인 단풍잎 역시 감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막상 그 단풍나무 밑에 가서 보면 나무 밑동에 이런저런 벌레와 추적추적 습기 찬 떨어진 나뭇잎으로 보이던 것과는 다른 기대 이하의 풍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음陰 양陽의 조화로 사람은 물질적物質의 육신肉身과 기질적氣質의 정신精神으로 이뤄짐을, 과학의 물질과 물리를 극대화해도 기체氣體의 세계 즉 육신은 물질을 먹고 정신은 기를 먹어야 산다는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주역 괘에도의 괘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씁쓸한 현실을 묘사하는 괘이고 이런 괘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우리 속담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비견해도 좋으리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1	1	2	1	8	9
8	2	1	6	9	8	1	9
1	9	8	9	1	8	6	1
9	1	6	9	8	1	2	8
2	1	9	8	1	1	8	6
8	8	1	2	6	9	9	1
1	6	8	1	9	9	1	8
9	8	9	8	1	2	1	6
1	1	2	1	8	6	9	9

2	1	1	9	1	9	8	6
8	1	9	1	6	8	1	9
6	9	8	1	2	8	9	1
1	6	1	8	9	2	6	9
9	1	6	1	9	8	8	2
9	8	2	8	1	6	1	9
1	9	1	2	8	1	9	8
8	6	8	9	1	2	1	1
1	2	9	6	8	1	1	8